“누가복음 4장 14절~21절 강해 설교”

은혜와진리교회 조용목목사

구역예배

- 성경 : 누가복음 4장 14절~21절 강해 설교
- 찬송 : 찬송가 446장(새찬송가 391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공적 활동을 하시기 전까지는 갈릴리 나사렛 동리에서 생활하셨습니다. 30세가 되어 예수님은 나사렛을 떠났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요 1:29~34).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사렛 동리 사람들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조만간 나사렛을 방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을 여기 고향에서도 행할 것이라는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예상대로 예수님이 나사렛을 방문했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성경이 낭독되는 것과 거기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주로 랍비나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읽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내심으로 반색을 하였습니다.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회당장의 지명을 받거나 허락을 받은 사람이 성경구절을 읽고 설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책을 펴서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첫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을 덮어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을 낭독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강론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집중되었고 모두 귀를 기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칭송과 탄복의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읽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신자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② 성도를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십니다. ③ 신령한 은사를 주시고 성품을 변화시켜주십니다. ④ 거룩한 일을 하도록 감동 감화하여 주시고 열심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도들에 대한 성령의 임하심과 예수님에 대한 성령의 임하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만사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임하신 성령은 무제한적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십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그에게 높고 신성한 직분과 지위를 부여하고 존귀와 위엄과 존경을 보장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특별한 자격을 위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음을 나타내시려고 기름 붓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아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궁극적으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대속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실체입니다. 태양이 없이는 햇빛이 존재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복음 선언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복음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은 마귀의 꾀임을 받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달리 말하여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창조주를 떠나면 참된 자유를 상실합니다. 그날부터 인간은 마귀와 죄와 사망에 매인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전적으로 창조주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복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와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인생이 참된 자유를 얻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자유를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였습니다. (요 8:32~36)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진리는 어떤 사실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입니다.

둘째, 율법과 율법의 저주에서의 자유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갈 3:23) 하였습니다. 죄수처럼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 감시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13절에 기록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셋째, 사망의 공포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

귀에게서의 자유입니다.

기록되기를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히 2:14,15)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예속되어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사망은 육체적 사망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 후 있게 될 둘째 사망까지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예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였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범죄하도록 미혹하였고 죄로 인하여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마귀를 가리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혈육을 가진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하여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무력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시려고 하신 것은 매우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죄와 사망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부활은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에 종 된 인생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자유를 얻게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6) 하였습니다. 이 영생은 사망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생명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은 자는 장차 부활합니다. 기록되기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16~20).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1~53) 하였습니다.

둘째는,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복음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자신이 눈 먼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요 9:39~41)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적한 "눈이 멀었다."는 표현은 영적 무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면 무신론 사상에 빠지거나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삶의 근원과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의 영안(靈眼)을 열어 주십니다. 영안이 열려야 신령한 것에 관하여 알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7~19) 하였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눈을 밝혀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깊이만큼 마음눈이 밝아집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깨달음과 믿음이라는 시신경을 가진 마음눈으로 지각(知覺)할 수 있습니다.

제인 크로스비(Fanny Jane Crosby)는 1820년에 태어나 1915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95년의 한 평생 동안 9천 편의 찬송가를 작사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생후 6주 되었을 때 눈병이 나서 병원에 갔다가 의사의 실수로 시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크로스비가 한 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파출부로 일하며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크로스비를 돌보았습니다. 늘 곁에서 성경이야기와 찬송을 들려주던 사랑하는 할머니는 크로스비가 11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이 30세가 되었을 때, 어느 날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 가셨나"라는 찬송을 듣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찬송 가사를 들으며 이를 자신의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자신에게는 시를 쓰는 재능이 있으니 이를 주님께 드리기로 다짐하였습니다. 첫 작사한 찬송 가사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라는 찬송 가사였습니다. 우리의 찬송가에 크로스비가 작사한 곡이 23곡이나 실려 있습니다. 많이 불리는 찬송가입니다.

어느 부흥집회에서 어느 목사님이 크로스비를 동정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렇게도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선물로 주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로스비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면 저는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면서 "왜 그렇습니까?"라고 질문하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내 눈이 제일 먼저 보고 좋아할 수 있는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크로스비가 믿음에 의한 마음눈으로 보고 듣는 실상을 형용한 가사 중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셋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형용하였습니다.

'눌린 자'란 말은 산산이 부서진, 짓밟힌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서지거나 짓밟히게 되면 정상상태가 무너진 것입니다. 심령이 눌리면 기쁨이나 평안이 사라지고 근심과 두려움에 잡히게 됩니다. 육신이 눌리면 건강과 활력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은 눌린 상태를 해제시켜 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행 10:38) 하였습니다.

넷째는,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하는 복음으로 형용하였습니다.

'은혜의 해'는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규정되어 있는 희년 제도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희년 제도는 매 50년마다 실시되는데 이때는 땅의 경작이 중지되고 빚은 탕감되며 기업은 회복되고 종들은 자유하게 되어 가족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 희년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구원의 예표이며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는" 복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심령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생활이 빈곤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소유의 크기와 관계없이 우리는 항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귀중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복음보다 더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선언은 주전 2,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이 복음의 은총을 누리며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쓰며 살기를 바랍니다.